대표 생태관광 프로그램

유형 | 당일형

과거로 떠나는 누정문화여행

활동장소	무등산생태탐방원 및 환벽당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전 연령
참가인원	30명 내외/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 누정문화의 기원과 그 의미를 깨닫는다. •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문화재(기념물)의 가치를 알아본다. • 가사문학의 산실, 환벽당에서 옛 선비들의 정취를 느낀다.
준비물	• 기가폰, 테블릿PC, 종이액자, 사진 프린터, 캘리그라피 세트, 구급약 등
유의사항	• 문화재 보호를 위해 낙서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 급격한 경사로에서 장난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단계	내용	시간
도입 (생각열기)	• **첫 만남**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무등산국립공원 및 무등산생태탐방원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탐방)	• **우리고장에서 누정이 자리 잡은 이유는?** – 무등산의 빼어난 경치 – 누정이 품은 선비들의 의지와 뜻 • **'누정을 누리다' 인문학 이야기** – 500년 전 가사문학의 역사가 바뀐 운명적인 만남 – '환벽당' 이름에 담긴 아름다운 뜻 – 우리고장의 인문학적 가치가 큰 곳 • **누정에서 만드는 나만의 추억액자 만들기** – 나만의 서풍(書風)으로 글자에 의미를 담기 – 캘리그라피란? – 누정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	9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다함께 주변 정리** • **활동내용 및 '약속'에 대한 개념 정리**	2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첫 만남** 오늘은 무등산생태탐방원 인근 가사문학권을 둘러보며 옛 선비들이 즐겼던 누정문화를 느껴보고 정취에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 환벽당에서 탐방을 약 2시간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누정에 앉아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역사라디오를 듣는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절별 생태해설(봄, 여름, 가을, 겨울)** **봄 :** 봄이 왔으니 '봄나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실까요? 노래를 부르니 나들이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노래에 등장한 개나리와 같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물들은 봄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환벽당에서는 봄에만 볼 수 있는 봄 전령사가 있습니다. 바로 매화와 산수유입니다. 매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즉 네 가지 식물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식물이기에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은은한 향기를 멀리 퍼뜨립니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으로 선비들은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상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선비들의 모습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피며,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봄을 알리는 꽃인 산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원불멸 사랑을 뜻하는 꽃말을 지니고 있는 산수유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식물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유도) 앞서 이야기한 매화, 생강나무,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식물인 매화나무와 산수유나무에 대해서 알고 은은한 꽃향기를 느끼셨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름 :** 날씨가 많이 더우니 잠깐 그늘로 가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시나요~? (대답듣기) 그렇다면 우리 옛 선비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고, 많이 심었을까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배롱나무입니다. 선비들이 배롱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마다 껍질이 벗겨지는 배롱나무의 모습이 마치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선비정신과 닮아있기 때문입

니다.
배롱나무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답을 듣는다.) 한자로 자줏빛자, 장미미, 꽃화자를 써 자미화라고도 불립니다. 또, 배롱나무는 여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꽃나무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백일동안 피는 꽃입니다. 이렇게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고 하여 백일홍 나무라고 부르다가 점차 배롱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선비들이 좋아했던 나무를 보았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을 :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날이기에 환벽당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입구부터 진홍빛의 강렬한 색깔의 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가을 초입인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짧은 시기동안만 피었다가 어느 날 일순간에 속절없이 지고 마는 이 꽃의 이름은 꽃무릇(석산화)라고 합니다.
'푸르름으로 둘러싸인 집' 이라는 뜻을 가진 환벽당이 온통 붉은 꽃무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꽃무릇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바위틈에서 핀다하여 '석산화' 라고도 합니다. 짧은 기간 화려한 모습을 유지하는 꽃무릇은 서로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도 못 만나는 꽃과 잎을 가져 '이룰 수 없는 사랑', '슬픈 추억' 이라는 꽃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꽃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듯이 이 꽃에도 여러 가지의 슬픈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처녀가 스님을 사모하다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시름시름 상사병을 앓다가 죽은 뒤, 스님의 방 앞에 붉게 피어났다는 이야기로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담은 꽃무릇을 한껏 느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겨울 : 추운겨울 나무들은 옷을 벗고 하얀 이불을 덮고 있는 계절인데요.
환벽당 주변을 둘러니 어떠신가요? 겨울에도 푸름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겨울이 되도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개를 둘러보며 주위는 확인한다)
저 푸른 기둥의 나무 보이시나요?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 나무는 우리가 앉아있는 환벽당과 같은 벽자를 쓰고 있는데요.(참여의 대답을 유도하여 나무의 이름을 알아본다.)
네, 나무의 이름은 벽오동나무인데요. 나무수피가 벽색(푸른색)을 띄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꽃말은 옛 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한국의 최고의 원림이라고 불리는 소쇄원을 가시면 가장먼저 '대봉대'라는 초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초정 앞에도 벽오동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환벽당 앞의 벽오동, 대봉대 앞의 벽오동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호응유도 및 궁금증을

유발한다.)
대봉대의 봉자가 봉황의 봉자인데 봉황은 나라의 태평성대가 되면 나타난다는 전설의 새죠?
옛 사람들은 항상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 봉황이 나타나길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봉황이라는 전설의 새는 무엇을 먹을까요?(호응유도 및 관심을 집중시킨다.) 바로 이 벽오동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쇄원의 대봉대 앞에, 환벽당 앞에 벽오동나무가 있는 이유는 열매가 열리면 봉황이 나타나길 나라는 마음에서 심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누정이 자리 잡은 이유는?

자~ 여러분!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대답을 듣는다.) 네! 바로 앞엔 시원한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등산의 빼어난 경치와 맑은 물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누정(樓亭)이 자연스레 자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살펴, 바른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은 누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과 삶의 지향을 담아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한 이 누정들은 모두 그 증거들입니다. 누정은 사람을 모으고, 세상사를 논의하는 공론(公論)의 장(場)이었고 이 공론이 지역의 여론과 세상의 흐름을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선비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비와 인재들이 길러진 곳 역시 누정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정이 품은 시간과 옛 선현들의 의지와 뜻이 이곳엔 고스라니 담겨 있습니다. 옛과 지금이 다른듯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우 닮아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대답과 호응 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문학' 역시 누정이 만들어낸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 가사문학의 무대와 주제가 되었던 곳들이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니 모두가 역사 속에 들어와 있네요?
뛰어난 작품을 줄줄 외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속에 옛 선조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고민과 풍류를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좀 더 의미있게 다가올 거 같습니다.
(관객 참여유도)

'누정을 누리다' 인문학 이야기

자! 여기를 집중해 주십시오. (주의를 집중시킨다.)
창계천 혹은 증암천 앞에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일러 조대(釣臺)라 했습니다. 즉 낚시바위라는 의미죠! 그 앞 물이 모이는 곳을 용소(龍沼)라 해 용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이 있냐고요? 글쎄요. 궁금하

시면 용이 나올 때 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 (다함께 웃음)
우리가 갈 환벽당의 주인 사촌 김윤제선생도 이곳 조대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자, 500년전 낚시바위 조대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사촌 김윤제선생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자 선조 때의 문신인 송강 정철의 만남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호응유도)
그럼, 우리 환벽당으로 올라가 마루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벽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탐방객들과 함께 환벽당으로 이동하고 환벽당마루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들 편하게 앉으셨나요? 이곳이 고리 환(環), 푸를 벽(碧) 집당(堂)으로 이름을 지닌 환벽당입니다. 말 그대로 '푸르름으로 둘러 쌓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다시 느껴지시죠? 바로 환벽당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푸름으로 가득한가요? (환기를 시키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옛 집과 누정은 멋진 이름을 지니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 외국이름이거나 건설사의 이름이 붙은 아파트와 동호수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을 규정하지요? 그럼 여기서 색다른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과 집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고 살고 있는 이들과 혹은 가족들과 집에 대해 갖는 생각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대단하거나 멋진 이름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이름을 짓고 싶은가요?(질문을 던지고 답변유도)
'행복한 집' 혹은 '모두가 웃는 집'이런 소박한 이름도 좋겠지요? 정자가 주는 의미는 현재에도 이렇게 작은 의미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참여자들로 하여 본인의 집 이름을 짓게 하고 이름의 숨을 뜻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답을 유도한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00년 전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이었던 사촌 김윤제 선생은 관직을 떠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환벽당이라는 누정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사촌 김윤제 선생이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잠시 잠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환벽당 앞 조대 앞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꾼 그는 너무도 현실 같았던 꿈에 놀라 즉시 사람을 시켜 개울로 나가보게 하였습니다. 심부름을 간 사람이 "웬 소년이 목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김윤제 선생은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12살의 어린 송강 정철이었습니다. 말을 건네 본 김윤제는 정철의 영특함에 놀라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제자로 삼고 공부를 배우게 했습니다. 송강정철은 사촌 김윤제와 많은

이곳의 선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큰 선비로 커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정철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한 김윤제는 그를 외손녀 사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에 진출하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의 훌륭한 가사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사문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등산의 정자들과 이를 경영하던 옛 사람들, 이곳을 터전삼아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많은 선현들이 인재를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 학문을 가르쳤기에 오늘날 역사속의 송강정철과 교과서 속의 그의 가사문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벽당은 시가문학과 관련된 인문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며, 우수한 풍광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환벽당에 푸름을 즐기고 휴식을 취했다가 나만의 액자만들기를 통해 간단한 시 한 구절을 옛 글씨체로 붓펜을 사용하여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정에서 나만의 추억 액자 만들기

모두들 잘 휴식을 취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만의 추억액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누정에서는 선비들이 모여 자신의 글재주나 글씨(서풍書風)를 뽐내기도 하고, 주변 경치를 즐기며 그 느낌을 담아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 선비들처럼 누정에 앉아 주변을 느끼고, 그 느낌을 자신의 캘리그라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캘리그라피란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예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캘리그라피가 서예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서예는 정해진 법칙에 의해 쓰여지는 예술이라면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재료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금 더 동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캘리그라피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제목, 간판글씨, 상품로고 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손으로 직접 쓴 글씨라는 뜻을 가진 캘리그라피를 준비된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나만의 감성으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앞에 놓여있는 종이액자에 추억이 담긴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자신만의 글을 적어 완성하시면 됩니다.

(캘리그라피 예시본 나눠주고 만들기 시작한다.)

모두들 다 만드셨다면 각자 자신의 작품을 자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환벽당을 한가득 느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액자에 적은 글을 통해 소감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나눈다.)

남은시간 환벽당에 앉아 시원한 바람과 새소리 자연의 소리도 들으면서

	가사문학의 정취를 찾아 즐기셔도 좋고 창계천 줄기에 위치한 식영정, 취가정, 소쇄원 또한 누정을 즐겨 볼 수 있는 곳이니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